

전력수급체계(Paradigm) 바뀌어 나가야 할 시점

김정호 충청남도 에너지산업과장

1. 문제 진단

- 도내 서해안 지역에 화력발전소 집중
 - 경제적, 사회적, 환경적, 수급안전성 측면
- ⇒ 우리 도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민 전체의 건강 및 생활환경과 연결되고 우리나라 전력수요 공급체계(패러다임)의 구조적 한계, 위기

2. 구조와 한계

- (수요) 수도권 수요 집중 → 자체 전력자립도 부족 → 외부전력 의존도 심화
- (발전) 원자력, 석탄에 편중 → 대규모 단지화 및 지역 편중
- (송전) 장거리 송전망 건설 지속 → 송전선로 지역내 주민 간 갈등 야기

< 화력발전 설비 현황 >

- '16. 6 현재, 총 26기 12,400MW(우리나라 전체의 47.2%)
 - ※ 2020년대 전,후로 20,300MW규모, 가동
- ⇒ 대부분 20년 미만, 계획된 설비는 사실상 준공단계로 폐지 또는 계획설비(민간사업자 경우 사업권의 문제)취소가 쉽지 않은 실정

3.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오염 저감방안

- 현재 화력발전설비의 환경기술 개선, 연료 전환
 - 고정비 증가, 연료비 증가 등 재정투자 수반
 - ※ 미세먼지 감소는 물론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도 연료전환은 적극적으로 검토, 긴요
- ⇒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('16 하반기) 의견 제시 및 반영
- “우리 도 생산, 수도권 소비”특별한 희생과 감내 중인 지역사정을 감안, 지역사회 외부불경제 효과를 요금체계에 반영한 “공정한 요금제” 도입